

“고려고 ‘내신 몰아주기’ 엄정 처벌해야”

각종 부정행각 드러나

교육계 비난 목소리 고조

강도 높은 수사 병행도 촉구

광주 고령고등학교의 성적 상위권 학생만을 위한 ‘내신 몰아주기’와 ‘일반 학생 들러리 세우기’ 등 각종 부정 행각(광주일보 2019년 8월14일자 6면)이 드러나면서 지역 교육계를 중심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교육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지역 교육계에 파장을 불러왔음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고령고와 학교법인 고려학원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과 함께 사법당국의 강도 높은 수사가 병행돼야 한다는

여론도 확산하고 있다.

광주교사노조는 14일 성명을 내고 ‘제식구 감싸기’ 식의 징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책임자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시험문제 유출 외에도 최상위권 학생들에 대한 특별관리와 대학입시 중심의 부당한 교육과정 운영, 대입 학교장 추천 전형 부실 등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부정행위가 있더라도, 교장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임기를 마치고, 교감은 시간이 지나 교장이 되는 게 기존 사립학교 징계 관행이었다”며 “그동안 사립학교는 각종 비위 사실에도 관련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왔다”고 꼬집었다.

또 광주시교육청이 해당 학교 교장과 교

감을 각각 파면, 해임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광주시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명심하고, 고려학원은 사립학교의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도 “명문대에 보내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편법으로 제자를 차별하며 상위권 학생을 특별 관리하는 행태에 할말을 잃었다”며 “감·경은 고령고 시험지 유출, 상위권 특별관리, 채점 오류 등을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정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날 답을 적어내지 못해 ‘빈칸’으로 제출한 성적상위권 학생에게 점수를 주고, 심화반 학생의 내신을 올려주기 위해 선택과목을 강요하는 등 각종 비교육적 행태를 일삼은 고령고의 부정

행각에 대해 “학교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한탄했다.

전교조측은 특히 아직까지 단 한마디의 사과 조차 하지 않고 있는 고령고와 고려학원을 뻔뻔한 모습을 지적하기도 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엄연히 피해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존재하고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우선 사죄하는 것이 옳다”며 “상위권 학생을 위해 희생당한 다른 학생들에게는 씻지 못할 상처가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시결과에 따라 학교를 평가하는 잘못된 풍조 탓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며 “재발방지 뿐 아니라 책임자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원안위, 한빛1호기 사고

조사결과·조치계획 출속”

원전 전문가들 지적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최근 심의·의결한 ‘한빛 1호기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이 졸속으로 작성됐다는 원전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현장 정비원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이 사건을 계기로 관료조직의 인력만 늘리려 한다는 것이다.

원전 전문가 단체 ‘원자력 안전과 미래’는 14일 성명을 내고 “일선 현장 작업자에 대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규제기관의 태도는 납득할 수 없는 갑질행위”라며 “기소 중지와 즉각적인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원안위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해 조사한 결과 지난 5월10일 발생한 한빛 1호기 원자로 열출력 급증사고는 무자격자의 조작과 절차서·법령 위반 등 인적 오류에 의한 것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으며,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가 있는 직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원자력 안전과 미래’는 “특사경의 조사는 정비원에게 ‘정비가 아닌 운전을 했다’라고 실토하라는 강압수사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모든 책임을 현장 정비원 1명에게 떠넘기고 이를 기회로 인력만 늘리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자력법과 규정에는 기기를 정비하는 정비요원이 모두 운전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사고 원인이 반응도 계산 실수에 따른 착오에 의한 것이지, 정비요원이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해진

05:52
19:22

달뜨기
달짐

19:28
05:15

비 오는 광복절

대체로 흐리고 비 오락가락 하겠다.

광주	비	26/32	보성	비	24/32
목포	비	26/30	순천	비	26/32
여수	비	26/32	영광	비	25/31
나주	비	25/31	진도	흐림	26/30
완도	비	26/30	전주	비	25/31
구례	비	25/32	군산	비	26/31
강진	비	26/30	남원	비	25/31
해남	비	25/30	흑산도	흐림	24/28
장성	비	24/31			

인cheon	서울	춘천	강릉
대전	청주	충주	영주
전주	대구	부산	제주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0.5~1.0
남해 앞바다	서~북서	0.5~1.5
남해 서부	북서~북	0.5~1.5
남해 동부	북서~북	1.5~2.5
남해 서부	북서~북	1.5~2.5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7:42 19:38	02:26 14:15
여수	03:07 15:00	08:58 21:38

◇ 주간 날씨

16(금)	17(토)	18(일)	19(월)	20(화)	21(수)	22(목)
☁	☁	☁	☀	☁	☁	☁
25/30	24/32	23/33	23/33	23/32	23/32	23/31

◇ 생활지수

위험	높음	좋음
식중독	자외선	미세먼지

태풍 ‘크로사’ 영향권 내일 오전까지 비

광복절인 15일 광주·전남지역은 새벽부터 제10호 태풍 ‘크로사(KROSA)’(중심기압 970hPa, 최대풍속 32%, 중형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려 16일 오전까지 오겠다.

14일 광주지방기상청은 “15일 광주·전남은 태풍의 가장자리에서 만들어진 구름대로 인해 대체로 흐리고 늦은 오후까지 가끔 비가 오겠으나, 낮 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16일 오전까지 광주·전남 예상강수량은 5~40mm 내외로 내다봤다.

기상청은 태풍 중심(눈) 영역이 타원 형태로 변해 넓어짐에 따라 영향 반경(강풍영역·강수영역)이 확대되고 있어 태풍 영향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관측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기상청은 광주와 전남에 내려진 폭염특보를 해제하거나 폭염경보를 폭염주의보로 변경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중인 지역에는 15일·16일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고,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나 불쾌지수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병호 기자 jushb@

전남대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지정

전남대학교가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돼 앞으로 식약처의 인허가와 관련된 시험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전남대 생체의료시험연구센터는 지난 12일 관련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국내 의료기기 제조기업 및 수입업체에게 해당 품목군에 대한 물리적, 기계적 안전성 시험, 생체적합성시험(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및 지정 품목군 성능시험 지원이 가능해졌다.

의료기기시험검사는 모두 26개 품목으로, 의료처치용 기계기구, 체내삽입용 의료용품, 인체조직 또는 기능대치품, 치과용합금, 치과처치용 재료 등 5개 품목군을 지정받았으며, 앞으로 품목군 추가지정을 통해 시험검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채희종 기자 chae@k



완도해경 구조대 맨몸수영 훈련 완도해경 구조대원들이 지난 13일 완도 앞바다에서 구조능력과 체력 향상을 위해 2.3km 바다 맨몸수영 훈련을 하고 있다. 바다수영에는 모두 7명이 도전해 50분 만에 전원 완주했다.

대학 정원감축 자율화...구조개혁 잘하는 대학에 재정지원

대학역량진단 계획 시안 발표

정부가 주도했던 대학 입학정원 감축이 앞으로 대학 자율에 맡겨진다.

교육부는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각 대학이 인구 감소·4차 산업혁명 등 사회 변화에 맞게 역량을 갖추고 혁신하고 있는지 정부가 진단하는 것으로, 사실상 입학 정원 감축의 도구로 여겨졌다. 하지만 2021년부터 진단 기능은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을 정하는 것으로 단순화된다.

대학들은 2021년 진단에 앞서 자체적으로 적정 정원을 책정하고, 이에 맞게 입학생을 줄일 계획을 세워야 한다.

입시 현실과 특성화 계획 등을 고려해 적정 규모를 정해야 2021년 진단에서 양호한 점수를 받아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될 수 있다.

교육부는 적정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신입생·재학생 총원율 배정을 전체의 2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13.3%보다 6.7%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정원 감축에 소극적으로 나설 것에 대비해 ‘유지 총원율’ 지표를 신설한다. 2021년 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는

대학은 이후 3년간 학생 총원율을 일정 수준 유지해야 재정지원을 유지할 수 있다.

‘정원 감축이 대학 자율에 맡겨졌지만 ‘수도권 쏠림’의 입시 구조는 여전히 지방대의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을 선정할 때 90%를 5개 권역 기준으로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10%에서 전국단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또 핵심 지표의 만점 기준을 각각 수도권·비수도권이나 권역별로 분리하기로 했다. 진단과 별개로 지역대학 지원 정책도 병행하고, 국립대 재정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하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